

긴급 백신접종 조기이행 및 철저한 소독관리와 함께 전남지역 전체 우제류 사육농가 방역실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월 22일까지 빈틈없는 백신접종과 소독 관리 당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17일(월)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라남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3년 5월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 영암에서 재발생하였고,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남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최근 발생 현황: '23년 5월 11건(청주 증평), '19년 1월 3건(안성·충주), '18년 3~4월 2건(김포)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반 편성(108개반 337명) 및 접종 현황, 영암군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계획, 가축시장(15개) 잠정 폐쇄 현황,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 등 전남지역 방역 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 질병으로 전남도는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하였다.

첫째, 전남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필요 시 지역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소·돼지 사육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게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셋째, 소·염소 사육농장은 개방형 축사형태가 많아 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점검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순환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산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우제류 사육농가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전남도와 농축협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제류 농장뿐만 아니라 축산시설과 축산차량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지호 (044-201-2532)

대한민국 **지척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